

남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구청 살림 ‘꼼꼼 심의’



남구의회 제228회 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 심의

남구의회(의장 이호승)는 지난 1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벌였다.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임시회는 제7대 의회에서 안전처리를 위한 첫 임시회로 그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열의로 가득하였다.

남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지난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한다.

의회는 또 회기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리한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심사로 한정되어있던 위원회의 기능이 “지방규제 신고센터”로 접수된 규제 예로사항 심의 및 해결방안 모색 등으로 확대되고, 2014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에 위원회 운영 실적이 반영됨으로써 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이수입증지 제조 등에 수반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증지 구입 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이수입증지를 전면 폐기하였기에, 수입증지의 발행, 판매인 지정 등의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수입증지 요금제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맞는 규정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2014. 1. 28) 반영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2013. 7. 5.)에 따른 목적을 변경하고자 함. 또한 “평생학습관 등”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및 평생학습센터 지원 관리 등의 기능 마련으로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와 평생교육 기관 지원 범위를 「구 소속 기관 및 시설」,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구체화하고 지도 감독 범위를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를 현행 법률조항으로 정비하고 오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12. 12.)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관련 조문 정비·보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3. 12. 2.자로 부산광역시 남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제도적 기반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사항 정리를 위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우암3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 청취의 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3구역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함.



이호승 의장

박기홍 부의장

이강영 운영위원장

박재범 총무위원장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성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구의회 의장 이호승, 부의장 박기홍 의원

7대 전반기 남구의회 원구성

운영위원장 이강영, 총무위원장 박재범 의원

주도위원장 유장근, 예결위원장 성동환 의원

남구의회(의장 이호승)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단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쳤다.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제7대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 갈 의장에 이호승 의원, 부의장에는 박기홍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호승 의장은 의장 당선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이 부여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보다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 의장은 또 “현장 중심의 의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삶을 살피는 생활의정을 펼쳐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7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상임 위원장 선거를 치렀다.

선거 결과 운영위원장에는 이강영 의원, 총무위원장에는 박재범 의원, 주민복지도시위원장에는 유장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성동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남구의회 의원 인터뷰 ① 이 호 승 의장

“구민과의 소통으로 생활정치 실현”

“구의회는 생활정치를 펼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구민과의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0일 남구의회 의정실에서 만난 이호승(59) 의장은 의정 활동의 첫 일선으로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구청과 의회가 많이 변해 조금은 낯설고 설렌다”는 이 의장은 8년만에 남구 의회에 재입성했다. 이 의장은 8년전 지역구 선거에서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돼 4대 남구의원을 지냈다. 이후 두 번의 공전 탈락으로 쓴 잔을 마셨지만 절치부심 끝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44.63%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고 이어 전반기 의장에도 선출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8년의 휴식은 그에게 되려 ‘정체적 보약’이 되었다고 한다. “의원직을 벗었을 때도 지역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고 주민숙원사업에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의정활동을 할 때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고민했습니다.” 옛 의정 경험에 비추어 초선의 의원들에게도 그는 주민과의 만남을 더 자주 가질 것을 조언했다.

이번 7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그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여당 일색이었던 예년과 달리 구의회의 정당 구성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율이 8대 7인 상황에 서 이 의장이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7대 전반기 남구의회 이호승 의장이 인터뷰를 마친 뒤 촬영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터디모임 등 의원 전문성 강화 노력 30만 구민 대변… 생산적 의회 본령 충실”

대해 이 의장은 비록 정당에 소속된 신분이긴 해도 의회의 최장으로서 불편부당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초선의원이 10명이나 돼 필요하면 스터디모임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의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 정도 급전면 산골 오지 출신이라고 털어놓은 이 의장은 중학교 졸업 후 진학을 위해 부산으로 와 남구에서 25년을 살았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막내 아들

이 군 제대 후 얼마전 부경대에 복학했다. 남구 토박이는 아니어도 주민자치위원, 방위협의회 활동 등 지역 일이라면 두팔을 걷고 나서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30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정의 변화를 선도하고 구정을 견제, 감시하는 본령을 다하겠다”는 이 의장은 “그러나 초선 시절의 패기와 열정을 되살려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생산적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위원회, 오은택 시의원(남구2)이 교육위원회에 각각 소속됐다. 이희철, 진남일, 오은택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로 남구의회에서 시의원으로 첫 진입했다.

박재본 시의원 보사환경위원장에 선출

제7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에서 재선인 박재본 시의원(남구3·사천)이 보사환경위원장에 선출돼 2년 임기의 전반기 상임위를 책임지게 됐다.

이밖에 상임위원으로는 이희철 시의원(남구1)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진남일 시의원(남구4)이 해양도시보



남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7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남구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대 남구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제7대 전반기 남구의회 개원식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구청 간부와 상견례

지난 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는 제7대 남구의회 개원식이 열렸다. 개원식에는 최근 세월호 사건 등의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외부인사는 초청하지 않고 이종철 구청장과 구청 간부 공무원, 동장 등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남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의원선서문을 낭독하며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호승 의장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개원식을 통해 30만 주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성실한 봉사자의 자세로 주민들의 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구민의 뜻을 올바르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전문성과 청의성을 발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 구정의 현안을 다 함께 고민하여 남구의 발전과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의원들도 모두 한목소리로 지역 내 현안과 주민 생활불편 사항 해결에 전 의원이 열과 성을 다해 주민감동과 열린의정 실현으로 남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실현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의회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3개 상임위 운영… 구청 업무 등 감시

이번호에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의회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조직의 기본이 되는 위원회의 설치, 그 직무와 소관, 위원의 선임과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운영·총무·주민복지도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하

기도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남구청의 소관직무를 감시하고, 조례안 제·개정과 예산안의 예비심사, 청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결산, 의원 윤리·징계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소위원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홈페이지(http://council.bsnamgu.go.kr)에 접속하여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의 “제1편 의회”에 전문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청소년 의회 교실 첫 개최

부산항만물류고 30여명 참석

남구의회(의장 이호승)는 지난 9일 관내 용당동 소재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임원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상반기의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열린 의회교실과는 달리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의회교실

은 사뭇 분위기가 진지하였다. 이날 김광명 의원은 참가한 학생들에게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특강을 하고, 진학 및 사회진로에 대하여 고민이 많은 고교생들에게 본인의 사회경험담과 함께 인간관계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하는 강의와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조언을 해주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9일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이 열렸다.

“남구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의회사무국 (☎607-6521~6)으로 문의 바랍니다.

- 방청시기: 남구의회 회기중(정례회, 임시회)
- 방청장소: 본회의장
- 방청대상: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방청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